

"랜섬웨어 등 악성행위 식별 및 복구 기술" 특집호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랜섬웨어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필수 인프라 시설 등을 공격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파일 암호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기밀 정보 및 고객 정보 등을 탈취해 공개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공공기관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에서는 랜섬웨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 미국과 한국은 랜섬웨어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첫 대응반을 가동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랜섬웨어가 처음 등장한 지난 2015년부터 피해 금액이 3,80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23조 6,000억 원으로 약 62배 증가하였으며, 2031년에는 312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랜섬웨어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STOP RANSOMWARE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랜섬웨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랜섬웨어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백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암호키 복구 연구를 통해 복구도구를 제공하는 등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본 특집호에서는 랜섬웨어에 대한 동향 및 발전방안, 주요 대응정책, 분류 및 대상 식별 기술, 자금 탈취, 다양한 랜섬웨어의 공격 및 복구 동향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랜섬웨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본 특집호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기업이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줄어들기를 희망해 본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분들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학회지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학회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세대암호융합팀 김 기 분